전남둥지튼한전육상팀 '금빛질주신기록'

첫 대회서 대회신기록 우승하는 쾌거

1위 내주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지난 10월, 전남에 둥지를 튼 한국전력공사 육상팀이 전남소속으로 출전한 첫 대회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15일 서울 정동과 파주 임진각을 잇는 제50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한국전력공사 육상팀이 2시간 23분 01초로 대회 신기록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 정동에 위치한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벽제교 초입을 지나 파주 통일로주유소, 통일공원을 거쳐 임진각까지 달리는 46.9km의 코스로 진행됐다.

한국전력공사는 1번 주자로 나선 김재훈이 44분29초로 1구간을 통과했고, 2번주자 신현수가 45분 55초로 역시 가장 먼저 2구간을 통과했다. 이후 3번주자 이경호(29분56초)와 4번주자 박종학(22분41초)이 한번도 1위를 내주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시간 23분 01초의 기록으로 종전 건국대학교가 세운 2시간 26분 50초의 기록을 4분 가까이 앞당기는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상 수상의 겹경사도 누렸다.

최우수선수상에 김재훈이 MVP의 영예를 안았고, 박종학이 우수 신인상, 박주영 코치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전력공사 육상팀 단체사진. 김재용 감독(맨 왼쪽), 박주영 코치(맨 오른쪽)

김재무 회장은 "한국전력공사 육상팀의 전남 소속 첫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첫 대회, 대회신기록의 우승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한전육상팀의 우수 성적 거양은 전남 육상의 연계육성 확립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환기자

광주체육중, 제46회 장보고 전국선수권대회 금 1·동 1개

광주체육중 조정부가 11~13 부산 서 낙동강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된 '제46회 장보고 전국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중부 싱글스컬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2학년 서예서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여중부 더블스컬 1학년 김지선·김아인 학생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 2학년 서예지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시합을 못뛰어서 아쉬워하며 내년에 있을 소년체전에서도 꼭 우승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체육중 신영금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선수들을 가르쳤다"며 "학생들에게 더 멋진 꿈을 키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제46회 장보고 전국선수권대회 1학년 김지선, 김아인3위

광주체육중 김제안 교장은 "코로나19로 운동시간이 부족한 상황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 모두가 금메달리스트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벤투, 무리뉴와 신경전 "손흥민 출전 배려? 최선다해야"

"손흥민 포함한 소속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조절돼야"

유럽 원정 평가전 카타르와의 경기를 앞둔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손흥민(토트넘)의 체력 안배와 관련된 질문에 최상의 스쿼드로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년 만에 오스트리아에서 해외 원정 평가전을 치르는 벤투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선수단 총 25명 중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스태프 2명을 포함하면 총 8명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출전 가능 선수가 13명 이상(골키퍼 1명 포함)일 경우, 경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 규정에 따라 카타르축구협회와 협의 끝에 예정대로 경기를 갖기로 했다.

벤투감독은 친선경기를 앞두고 이날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선수단 분위기 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 남은 시간 잘 쉬고 회복하도록 팀을 이끌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근 조세 무리뉴 감독은 A매치 기간 대표팀에 차출된 소속팀 선수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주 감동적인 대표팀 경기고, 대단한 친선경기다. 아주 안전하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표팀 훈련장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포함한 소속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조절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벤투 감독은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전달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최상의 스쿼드로 경기를 치르려 한다. 그래야만 좋은 경기력을 보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소집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규정상 일본과 중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오지 못했고 명단 발표 이후에도 여러 사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손흥민의 출전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미리 특정 선수의 교체를 준비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대표팀 감독과 클럽팀 감독을 다 경험했다. 선수가 소속팀에 있을 때 대표팀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대표팀에 있을 땐 대표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MLB 최초 여성 단장' 킴 응 "인내하면 꿈은 이뤄진다"

마이애미 말린스 단장 취임 "1만 파운드의 무게 느껴져"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여성 단장 킴 응(52)이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있다. 그 일부가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MLB닷컴, ESPN 등에 따르면 응 단장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응 단장은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다 보면 결국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는 물론 북미 남성 스포츠구단에서 여성이 단장에 오른 건 처음이다.

응 단장은 지난 1990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메이저리그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를 거쳐 2011년부터는 메이저리그 사무국 수석 부사장을 지냈다.

이전까지 6차례 이상 단장직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남성 위주의 야구 문화에서 여성인 그가 단장에 오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유리천장을 깼다.

축하 인사도 쏟아졌다. 단장 선임 발표 후 72시간 동안 1000통이 넘는 문자와 이메일을 받았다. 미셸 오바마와 재키 로빈슨의 딸 샤론 로빈슨, 전 테니스 스타 빌리 진 킹 등도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단장에 임명된 게 큰 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사람들은 희망과 영감을 찾고 있다. 내가 그 일부가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초의 여성 단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그를 향한 시선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힘들게 올라온 자리, 이제는 또 다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응 단장은 "데릭 지터 사장이 처음 단장 선임을 알려줬을 때 내 왼 어깨에 1만 파운드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 30분쯤 지나자 그 무게는 다른 어깨로 옮겨졌다"며 남다른 책임감을 드러냈다.

뉴시스

1순위 쥔 이상민 감독 "고교생 차민석, 돌파는 좋은데…"

삼성, 20년 만에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획득

프로농구 서울 삼성이 20년 만에 국내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확보했다.

삼성은 16일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열린 2020년 신인 드래프트 순위 추첨 행사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했다.

그동안 드래프트 순번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던 삼성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순위 신인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현재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이규섭 코치 이후 처음이다. 이 코치는 2000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삼성의 부름을 받았다. 2000~2001 시즌 신인상을 차지했고, 삼성에서 두 차례 우승에 일조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진 이상민 삼성 감독은 "확연하게 '누가 1순위다'라고 할 순 없지만 팀 사정상 포지션별로 모두 보강할 필요가 있어 코칭스태프 미팅을 통해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다른 팀들도 비슷하겠지만 솔직히 즉시 전력감 선수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할지, 한다면 가드 라인을 고려할지, (김)준일이가 다친 상황에서 빅맨으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 신인 선수로 평가받는 로터리 픽 후보는 가드 박지원, 센터 한승희(이상 연세대), 센터 박진철(중앙대), 가드 이우석(고려대), 고교 졸업 예정자 차민석(제물포고) 정도가 거론된다.

구단별 희망 선수는 팀 상황과 선수 구성에 따라 제각각이다. 몇몇 구단은 티내지 않으면서 고교생 차민석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민석은 200㎝ 장신 포워드로 기동력과 높이를 겸비했다.

송교창(KCC), 양홍석(KT), 서명진(현대모비스)으로 이어지는 고교생 로터리픽 계보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교창, 서명진은 각각 삼일상고, 부산중앙고를 졸업하자마자 프로 유니폼을 입었다. 양홍석은 중앙대 1학년을 마치고 대학생활을 포기했다.

송교창은 2015년 3순위, 양홍석은 2017년 2순위, 서명진은 2018년 3순위로 프로에 입문했다. 모두 팀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이 감독은 "미래 가치를 본다면 차민석이 고려 대상이겠지만 (송)교창이나 (양)홍석이와 비교할 때, 차민석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모두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200㎝의 큰 키에 돌파 기술이 매우 좋아 보였고, 간결해서 좋았다. 그런데 슛을 전혀 쏘지 않더라"며 "요즘 추세로 보면 매우 적절한 선수이지만 더 꼼꼼하게 살피고,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제물포고 차민석 (사진 = KBL 제공)

김민정기자

최혜진, 여자골프 세계랭킹 24위

고진영 1위·김세영 2위·박인비 5위 순위 그대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종전인 SK텔레콤·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최혜진이 세계랭킹 20위권에 안착했다.

최혜진은 17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대비 6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했다.

최혜진은 이틀 전 끝난 대회에서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 정상에 올랐다. 꾸준한 성적에도 우승과 연을 맺지 못하던 최혜진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마수걸이 승리이자 개인 통산 10승을 거머쥐었다.

KL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유해란은 9계단 오른 16위를 차지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복귀를 앞둔 고진영이 여전히 1위를 사수한 가운데 김세영이 2위를 지켰다.

박인비는 5위, 박성현은 9위, 김효주는 10위로 순위 변동은 없었다.

서선옥기자

KLPGA 인기상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020시즌 KLPGA투어를 빛낸 '인기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2일까지 KLPG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골프팬 1명당 올 시즌 KLPGA 정규투어에서 활약한 127명의 선수 중 3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주인공은 오는 2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KLPGA 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인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

KLPGA 인기상은 매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인기 선수가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최혜진이 2년 연속으로 수상한 바 있다.

투표를 인증한 골프팬에 푸짐한 선물을 주는 인기상 투표 인증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김미희기자